

부산지역 양호교사 및 양호겸직 교사의 학교보건업무 활동 양상

박정자*, 정문숙

*경남여자 중학교 양호교사, 경북대 보건대학원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261개교에 근무하고 있는 양호담당 교사들의 학교보건 일부수행 및 보건교육 심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127명의 양호교사와 102명의 양호겸직교사, 총 22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회수에 의한, 자료를 조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호업무 경력이 양호교사 중 48.8%가 10년이상인 반면, 양호겸직교사는 59.8%가 4년 이하였다. 양호교사의 55.1%와 양호겸직교사 74.5%가 양호직에 불만족스러워 했으며, 대부분은 그 이유로 각각 동료교사들의 양호 전문직에 대한 인식 부족과 비전공이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양호겸직교사의 85.3%는 양호겸직 연수를 받은 적도 없었다. 양호업무경력, 임상경력, 교육정도, 설립주체, 양호직 만족도 등에 있어 양호교사와 양호겸직교사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양호겸직교사의 30.4%는 학교보건예산액도 모르고 있었으며, 양호교사 41.7%와 양호겸직교사 77.5%는 보건예산액 설정시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학교보건사업 계획 및 평가, 체질검사, 약품구입비와 일일 평균 처치수, 월 평균 상담자수 등 학교보건업무 전반에 있어 국·공립과 사립학교, 양호교사와 양호겸직교사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 0.01$).

양호교사의 49.6%가 정규보건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편, 양호겸직교사의 23.0%는 보건교육을 아예 실시하지도 않았으며, 양호교사의 88.2%와 양호겸직교사의 51%는 보건단일교과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규보건수업 실시 정도는 학교장의 협조와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P < 0.01$). 정규보건 수업자의 69.3%는 현 체육교과서 「보건」 내용을 60%도 참고하지 않았으며 69.4%는 교

안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었고, 보건교육시 애로사항으로도 64%가 교재 부족을 들었다. 양호교사의 보건수업 실시율은 양호겸직교사보다 높았으며, 학교장이 비협조적일 때라도, 양호교사의 38.5%는 보건수업을 하고 있었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학교보건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 당국의 뒷받침 아래, 학교장의 협조로 양호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시급한 충원과 정규보건교육의 제도화, 교육자료 개발이 되어야 하며, 현 양호겸직교사들이 최소한 학교보건업무에 관한 기본연수는 받도록 해야 한다.